한국건강관리협회지 제2권 제1호 2004년 6월
J. of KAHP 2004 ; 2 : 119

지방간의 유병률과 비만과의 상관관계

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 내과전문의

지 정 훈

The Prevalence of Fatty Liver and Relationship Between Fatty Liver and Obesity

Jeong-Hoon Ji

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Chung-buk Branch
Board of Internal Medicine

배 경

비만은 지방간의 징후와 가장 관련된 변수로 인지되고 있다.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간의 유병률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다.

방 법

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를 방문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던 내원자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진행되었다. 대상자는 총 1,688명(남자: 831명, 여자: 857명)이었고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체질량지수(BMI)와 Alanine aminotransferase(ALT)였다. 지방간의 진단은 규정된 실시간 초음파진단 기준에 근거를 두었다. 데이터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로 수행되었다.

결 과

총체적인 지방간 유병률은 31.64%(남자: 35.58%, 여자: 28.0%)였다. 지방간의 유병률은 BMI와 함께 증가하였다(BMI<18.5:1.72%, 18.5≤BMI<23:5.01%, 23≤BMI<25:29.04%, 25≤BMI<30:64.96%, BMI≥30:89.36%) ($P<0.0001$). 지방간의 위험도, 즉 지방간의 유병률은 비만의 위험도와 명백한 관련이 있었다(25≤BMI<30:24.43%, BMI≥30:72.34%) ($P<0.0001$).

결 론

지방간의 유병률과 위험도는 비만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. 이 결과는 BMI와 지방간의 유병률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준다.

핵심단어 : 지방간, BMI